

야마시타의 나침반 물통 고안

【O】 반대의 필수품으로 손꼽히는 물통과 나침반. 이 두 가지 물건을 하나로 만들어 크게 히트한 발명품이 있다.

이름하여 뚜껑에 나침반을 붙인 물통.

‘연필+지우개’라는 하이만의 발명품과 같은 이 물통도 세계적인 발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발명가는 산이 있어 세상 살맛이 난다는 일본의 젊은 등반인 야마시타.

야마시타는 일본의 산이라는 산은 모조리 정상을 정복할 정도로 등반에 관한 한 전문가였다.

그러나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수 있듯 야마시타도 등반 도중 길을 잃고 말았다.

배낭을 뒤져 나침반을 찾았다. 그런데 이날 따라 나침반을 가져오지 않았다.

큰일이었다. 당일 코스여서 음식도 준비하지 않았는데 벌써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진 것이라고는 허리에 찬 물통 하나가 전부였다. 그나마도 없었다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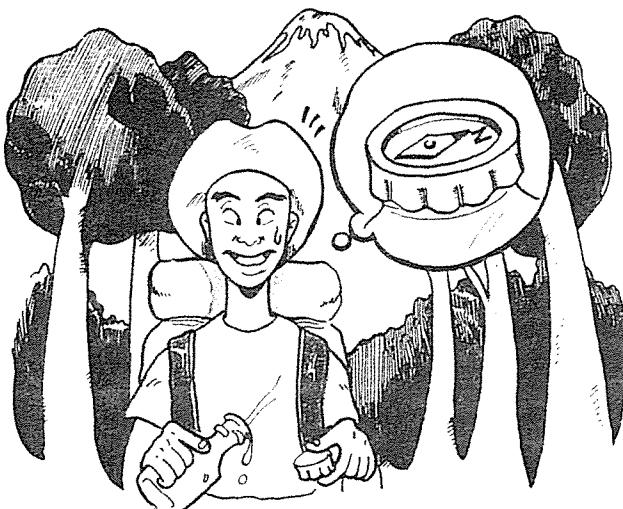
고 생각하니 아찔한 생각까지 들었다. 우선 물 한 통으로 밤을 새우기로 하고 물통 뚜껑을 열었다. 그 순간 야마시타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아무리 가깝고 낮은 산이라도 등산을 하려면 물통을 가지고 간다. 그렇다면…….’

야마시타는 물통 뚜껑에 나침반을 붙여놓으면 나침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성공이었다. 실용신안을 출원하여 등록을 받자 곧바로 상품화되었다.

한정된 등반인구로 인하여 많은 양이 팔릴 수는 없었으나, 야마시타는 발명가로 화려하게 데뷔하여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겼다.



왕연중
한국발명진흥회 이사

발·특2006. 12